

사·부·대·중

차량 염주를 願佛로

나는 몇 년전부터 운전 중에 마주치는 차량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다. 왜냐하면 차량 실내백미러 장치대에 어떤 호신용(護身用) 부적(?)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종교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 50% 정도의 차량이 불교의 염주나 작은 연꽃등을, 20% 정도가 기독교의 십자가를, 10% 정도가 천주교 묵주를, 그리고 20% 정도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다. 같은 불자로서 흐트러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주나 연꽃등을 달고 있는 차량운전자의 위반 및 횡포 때문에 불교계 전체가 욕을 먹고 초발심자의 불심이 꺾이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 조아리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 차창문을 열어놓고 고막이 터져서 들어오는 음악소리, 갑자기 끼어드는 압제운전자, 수시로 울려대는 경적의 소음, 비좁은 길에서 곡예 운전하는 택시운전자, 양보 운전자의 나이는 아랑곳 없이 손가락에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답배끼우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 등 교통체증의 요인 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운전자의 80% 정도가 차량에 염주나 연꽃등을 달고 있으니 외형상으로는 틀림없는 불자들이다. 우리가 무심코 달고 다니는 염주나 연꽃등이 부적이 될 수는 없다. 염주는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정진수행할 때 사용하는 불구(佛具)의 하나요, 연꽃등은 내 마음의 미혹함을 밝히는 법등(法燈)인 것이다.

난폭한 운전으로 남보다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이제 모두 부처님전에 내려놓자. 그리고 운전에만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안전운행을 하겠노라고 발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염주는 요행성 부적이 아닌, 살아 숨쉬는 부처님으로서 각자의 원불(願佛)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을 차 안에 모신 불자는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것이며 양보의 미덕으로 교통문화 창달의 선도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1부 기자)

눈길 끈 공불련 1돌

7일 창립 1주년을 맞는 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104개 불자회의 연합체로 성장해 불교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창립 당시 47개 불자회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두 배 이상의 급성장을 한 셈이다.

공무원 조직상 스스로 불자라고 드러내길 꺼려하고 불자회 결성도 매우 힘들었던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실행 생활로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활약에 치하를 보낸다.

공불련은 창립 당시부터 교리강연회, 경전강독회, 선법회, 기도법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회원들의 불심을 갈고 닦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에 불자회가 없는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공불련 지도부의 공의를 모아 불자를 찾고, 모임이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양한 도반의 모습도 오늘날의 공불련이 있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직능단체가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종파, 서로 다른 재직 사항, 서로 다른 근기 등으로 끈끈한 결속력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창립 이후 공불련이 보여준 '참불자' '참도반'의 모습 앞에서는 회원간의 서로 다른 종파, 사찰, 근기 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불련' 활동이 여타 직장직능단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공불련은 상징 로고, 배지 제정, 불자회 기관지 창간 등 또다른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지런히 정진해 내내에도 두 배 이상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하는 2주년대회를 기대해 본다.

종교사회복지포럼 '불교복지의 방향' 조명

"수탁 운영 급급...신행차원 복지불사로"

종교사회복지포럼(회장 권경임)이 9월 25일 '시민사회에 있어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그 동안의 불교계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날 불교, 원불교, 가톨릭계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민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사회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불교계는 80년대 목동청소년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복지에 뛰어들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불교계는 50여개의 사회복지법인에서 400여개의 시설을 운영할 만큼 급성장했다. 물론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의 이 같은 통계에는 비인가 시설이 제외돼 있어, 양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불교의 역할은 지대하다.



불교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불교사회복지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복지관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자비, 사회복지의 시작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慈悲)'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불교의 중생제도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사하촌 주민들이 궁핍한 시절 공간을 열어준 스님의 자비심을 기리며 세웠던 '공덕비'는 사회복지라는 말 이전에 불교가 그와 같은 일을 중시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관련 학계에서 '새로운 모델의 종교사회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학계의 요구는 이렇다. 종교사회복지관 국가나 민간 차원 복지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데, 장애인이나 무의탁등 노인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자선구호에서부터 노숙자와 같이 사회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종교복지계가 자체적으로

교계시설 400곳 수적 성장 불구 최하층 이용률 저조-지역 편중

시설의 73%에 이른다든 점에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불교계 복지시설은 대상자나 지역분포에서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의 88.8%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이 역시 수도권이나 경상남북도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나 후원금의 규모는 시설이 소재한 곳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경

우, 1주일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평균 인원은 29명이고, 가장 작은 인원은 5명, 가장 많은 인원은 120명이다. 후원자의 경우 역시, 1개월을 단위로 한 평균 인원은 89명이었으며, 가장 작은 경우가 10명, 가장 많은 경우가 5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소수의 시설만이 후원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책은
이에 따라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복지관 못오는 노인에도 자비 베풀어야"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불교계 복지 분야에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면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위탁에 의존하지 않는 불교 사회복지의 장을 한시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권경임 씨는 불교계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생력'이 가장 시급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



가장 소외 받은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 요구되는 게 바로 인력과 재정이다. 타종교에 비해 노숙자 시설이나 간병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에이즈 환자 보호 시설이 없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종욱 기자

또한 권 회장은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불교 사상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불교사회복지가 가장 소외 받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체계를 잡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복지관 쉽게 말해 복을 짓는 일"이라는 권 회장은 "복인(福因), 복행(福行), 복과(福果)라는 말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보여 준다"며 "불교사회복지의 과정, 즉 그 체계를 잡는 일에 불교 복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와 타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기고 / 2001 중국기행 ①
장강 40여 일 동안 광활한 대륙의 여정이 한강강 남치게 권치지는 일지 스님의 중국 여행기
제1화 - 실로르드의 관문, 장안(長安)에서 현장과 의정을 만나다

해의불교 법문 - 일본 釋道流를 미국에 포교한 스즈키 순류 선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

연암 박자원의 불교이야기
『선관당기(線管堂記)』 - 사람의 이름은 때의 허물이나 글의 겹겹에 지나지 않는다

화보특집 - 밀교의식이 강한 일본의 불교 의식구

인터뷰가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교류하여 발전할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람이 그리워할 때...

성남주의 문화재소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중의 승전(昇天)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춘희 고자화 거사, 불국생 김미희 보살

▶ 그동안 연재된 7개 분야 총 26명의 저자들
학술 - 김일석, 김영수, 황의준, 박봉석
재가불교운동 - 강경호, 조인자, 윤주일, 여동명
연문/출판 - 장상문, 이한상, 이희희
문화/예술 - 고유신, 현영숙, 서정업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순, 양건익
사회운동 - 유대희, 김기주, 김성숙, 진진한
보시/신행 - 백선영, 김부진, 고자화, 김미희

각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 719-2606, 팩스: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련생모집

바라작법 특별반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 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지도과정 : (1)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 (도량식·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 (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성 등)
④ 재의식편 (천도제·49제·시달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 (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10월 9일까지(현재 접수 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바라작법반 모집

- 49제, 천도제 등 범회식 바라 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 수련기간 : 6개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4시~6시 (2시간)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성, 관음시식, 다비시 등(범주·바라지 교육전문)
·작법 :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북청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사물교육포함
- 접수방법 : 불교의식 속성반과 동일함

한국 불교 법사 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전화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